

「꿈의 레이저」 세계 첫 개발

MIT 유학 안경원 박사 전자통신 획기적 발전 기대

물리학회 위지 「물리평론」 소개

지금까지 이론산이론만
가동했던 꿈의 레이저가
한국 과학자에 의해 개발
됐다. 세계 최고 권위의 물
리학 저널인 「물리평론」
(Physical Review L
etters)에 게재되고 미국
매사추세츠 공과대학(MIT)
의 안경원 박사(34)가
마이크로 레이저 (초원자
레이저)의 레이저를 새로운
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성공
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다.

마이크로 레이저가 산업
계의 전자산업 (이동통신
이저) 등을 만드는 것이 가
장 큰 특징이다. 기존의
레이저가 주로 수광계의

원자를 이용해 레이저 빔
을 얻었다. 이차이는 레이
저가 물에서 질로 집어들

것을 의미한다.
한국 과학기술원 물리학과
과孔弘珍교수는 이 레이저
의 개발로 시간표준 기술이
표준의 새로운 장을 열 것

으로 기대되고 있고 전자통신
부분의 획기적인 발전
이 기대된다고 밝혔다.
안경원은 서울대 물리학과
과와 대학원을 나와 86년

MIT에 유학 중인 이 같은
업적을 거뒀다. 안경사
의 논문은 곧 발표되는 「네
이저」誌 등에도 소개될 예
정이다. <李基韓기자>